

## 고양이의 쥐약 중독

朴 鳳 基

港都家畜病院

全國적으로 쥐잡기운동은 해마다 實施되고 그때마다 몇 件의 家畜의 中毒을 目擊 診療했는데 被害家畜은 主로 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의 被害는 한 件도 보지 못하였고 고양이들이 여러마리 難을 當했는데 끝까지 그 經過를 追究할 수 있었던 세 件에 對해서 症狀 經過를 略記코자 한다. 그런데 이 세 件에 共通點이 있었는데 全部가 쥐를 먹고 發病했고 藥物撒布日로부터 5日以上을 經過해서 來院했다는 點이다. 쥐를 먹었다는 것은 그 嘔吐物에 쥐가 證明되었기에 밝혀진 것이고 症狀도 大同小異하고 公認롭게도 畜主의 住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웃 마을이란 點이다.

**第1例**: 2年生, 白黑, 牡: 1975年 5月 5日 初診. 어제 그저께 막 吐하는데 보니 쥐의 몸둥이 一部와 털 그리고 누르스름한 異常한 것을 吐하고 그 後 食欲 飲水 全廢, 한자리에 가만히 엎드려 앉아서 꼼짝도 않으며, 쇠고기, 鷄간, 牛乳, 계란 其他 무엇을 주어도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며 아마 쥐약을 먹은 쥐나 죽은 쥐를 먹은 것 같으면서 來院했다. 糞은 실사가 아니고 오히려 단단한 편이었다. 體格은 크고 좋은 편이었다. 稟告에 依하면 發病 3日째인데 營養狀態는 極히 나빴고 脫水症狀이 甚하였으며 털은 힘없이 빠지고 皮膚의 摘擧反應은 그야말로 漫漫의이다. 눈은 힘없이 감고 있었으며 開眼하니 瞬膜이 全眼球의 3分之2를 덮고 있었다. 瞳孔反射도 거의 없었다. 流涎으로 口周圍는 汚染되어 있었고 保定臺 위에 올려 놓아도 꼼짝도 않고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그 姿勢가 마치 사람이 배가 아플때 배를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모양을 想像시켰다. 觸診으로 腹部에 壓痛點을 發見하지 못하였고 腹壁은 無力, 속덩어리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혀에는 汚褐白色의 舌苔가 덮여 있었다. 各粘膜은 蒼白 貧血像이고 心音은 微弱, 體溫 37.8°C, 맥박 112/분, 周圍의 兒刺에도 無反應, 吾不關矣 茫然自失의 모양이라 할까 그렇다고 해서 昏睡狀態도 아니었다.

治療(5月 5日): 10% annaka 1 ml, Hypo 5 ml, Dlmethionin 50mg, 5% Dextrose 40 ml+0.9% NaCl 60 ml+V.B. Complex 1 ml, 그리고 magnesium oxide

I.S.에 watu Q.S.를 加하고 스포이드로서 適當量을 자주 反復投與하였다.

5月 6日엔 若干 元氣가 恢復되는듯 했는데 새벽에 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니 얼마 後에 激甚한 嘔吐를 하고 昏睡狀態에 빠지기에 急히 來院했으나 瀕死狀態였다. 可望 없음을 畜主에게 알렸는데 約 15分後에 두 번 程度 酷酷 하면서 嘔吐 涌내를 한 後 그대로 폐사하였음.

**第2例**: 牡, 2年生, 白黑, 1975年 5月 6日 初診. 稟告는 第1例와 거의 같았음 다만 若干의 渴慾은 있었고 물은 조금씩 마셨다. 希望에 따라 入院加療함.

治療: 第1例와 같은 處方이었음. 治療開始 2日째인 5月 7日 午後에는 自意로서 若干의 牛乳를 먹기 始作했고 3日째는 半熟卵을 4日째는 국에서 건져낸 멸치를 6日째는 밥, 멸치, 명태고기의 混合物을 먹기 始作, 舉動도 매우 活發해졌다. 그간 3回의 排糞이 있었는데 全部 硬便이었다. 後 順調로이 恢復했는데 이 고양이는 畜主가 事業上 多忙하고 地方出張이 많았다 해서 入院 12日째인 5月 17日 退院 귀가하였다.

**第3例**: 牝, 2年生, 三毛色. 이 케이스도 稟告는 大同小異하다. 그런데 嘔吐後 5日經過하였고 營養狀態는 極히 나빴으며 脫水症狀도 심하였다. 그러나 檢溫 때 또는 注射時 몸을 웅크리고 抵抗을 試圖하였다. 이번에도 希望에 따라 入院시켰는데 몹시 여윈 몸으로 第2例의 고양이에 挑戰할 態勢라 사람에 비유하면 所謂 악에 바친 사람이라 할까 한데 治療經過가 매우 좋아서 外觀上 얼핏 보기에는 第2例보다도 重症인 것 같았으나 治療開始 3日後에는 食欲의 恢復, 舉動의 活發 등 매우 好轉했고 畜主의 經濟事情 때문에 退院했으나 그後 順調로이 恢復되었다는 消息이 있었다.

以上 3件은 直接 쥐약을 먹은 것이 아니고 쥐를 먹고난 後의 發病, 發病後 며칠씩 經過했다는 點, 吐物에 쥐의 一部를 發見함으로써 쥐를 먹었다는 것이 確認된 點, 때마침 全國의인 쥐잡기가 있었던 時期, 急性熱性的 消耗性疾患도 아닌데 急激한 營養狀態의 惡化, 體液減少에 依한 脫水症의 進行 등 몇가지의 共通

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고양이의 臨床時 恒常 느끼는 點이고 또 나 自身 내 나름대로 豫後判斷에 한 가지 參考로 하는 點이지만 고양이의 頸背部에 皮下注射를 할 때 注射 바늘을 찌르려고 하면 매우 힘들고 相當히 큰 抵抗을 皮膚에서 받는다. 그만큼 고양이의 皮膚가 緻密強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脫水症, 榮養失調, 其他 어떤 重症의 疾患일 때는 주사바늘을 찌를 때 抵抗을 別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이 抵抗이 弱하면 弱할수록 豫後가 좋지 않다는 것을 體驗한 일이 있다. 이번의 3件도 첫날에는 注射를 줄때 모래 속에 못을 박는 것처럼 아무런 抵抗도 못느꼈는데 病勢의 好轉에 따라 皮膚抵抗이 增大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폐사한 第1例는 畜主의 同意를 얻지 못해서 剖檢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參考로 고양이의 疾病(G. T. Wilkinson 著)에 依하면 고양이의 疾病時 液體平

衡을 保持하기 위해서는 下記量의 水分을 經口的 또는 非經口的으로 補給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仔猫는 66~88 ml/kg/day, 成猫는 44~66 mg/kg/day.

過去の 例로는 쥐약을 먹고 오는 患畜을 보면 흥분, 狂燥, 呼鳴, 間心性痙攣 등 發作을 보는 것이 通例였으나 이번에는 確實히 쥐약 때문에 犠牲된 쥐를 먹고 發病되었다고 생각되는데도 그런 發揚狀態는 全然 없었고 오히려 침울상태였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痲痺 症狀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고양이의 飼育數도 차츰 늘고 一般의 고양이에 對한 認識도 向上되어 가는 徵兆가 보이는 이때 이때까지 等閑視되었던 고양이 臨床에 對해서 우리들 開業獸醫師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된다.

(釜山市 東區 佐川洞 67番地, ㉔ 4905)